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이 원 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7년 5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2호

2. 새로운 문화 창출 EF 축제
3. 거룩한 형상과 아름다운 세상으로… (미술치료)
6.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효자교회)
9. 가정식탁 어떻게 할것인가

부부는 이런 거래요

부부는 항상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이 나의 또 다른 나의 얼굴이랍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린답니다.
그러니 예쁜 거울속의 나를 보려면 내가 예쁜 얼굴을 [illegible]

부부는 평행선과 같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평생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각도가 좁혀져도 그것이 엇갈리어 결국은 [illegible]

부부는 무촌…
너무 가까워 촌수로 헤아릴 수 없으[illegible]
그런데 또 반대로 등 돌리면 남… [illegible]

부부는 반쪽과 반쪽의 만남…
한쪽과 한쪽의 만남인 둘이 아니라 [illegible]
그러니 외눈박이 물고기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 양쪽을 다 볼 수 있답니다.

부부는 한쪽 발을 묶고 같이 걷는 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며…
힘들 때는 서로 기대고 부축하여 앞을 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부부는 흔적을 같이 남긴 답니다.
자식이라는 사랑스런 흔적을 이 세상에 같이 남기니까요.

부부는 닮아 간답니다. 같이 늘 바라보니 닮는답니다.
결국 끼만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염색해주며 부부는 늘 아쉬워 한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하게 여긴답니다.

이달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이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캠퍼스 복음전도집회 타 를 위해
5월 10일 오후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열리는 복음축제에 모든 교회가 동참하여 청년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 희망과 생명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정치와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도시를 위해 헌신하도록, 특히 동계올림픽과 희망춘천건설 등이 은혜 속에 이뤄지며 거룩하고 복된 춘천과 강원도가 되도록.

· 7월에 열리는 '통일한국 춘천대회'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7월 강원대에서 열리는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를 통해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한 청년과 교회들이 모두 모여 연합하는 집회가 되도록.

·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혼율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높은 춘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가정마다 깨어지고 상한 문제들이 치유되고, 청소년들이 바른 미래를 준비하며 고통당하는 부부들마다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특히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와 같은 믿음의 영적회복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 한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한 기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받은 지도자가 서게 되며, 한국과 열방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참사랑 내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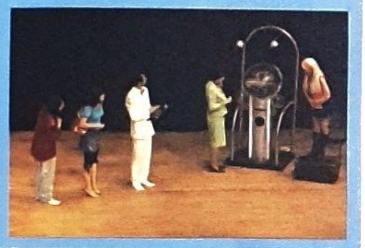
내 · 소아과
○ 위 · 대장 내시경
○ 종 합 검 진
○ 비 만 크리닉
○ 갱년기 크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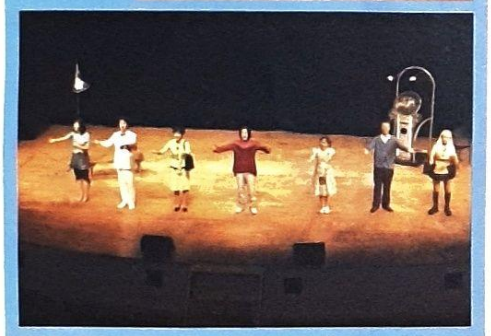
내과전문의 원장 정 형 만 Tel. 242-7560 Fax. 244-0617 춘천시 퇴계동 8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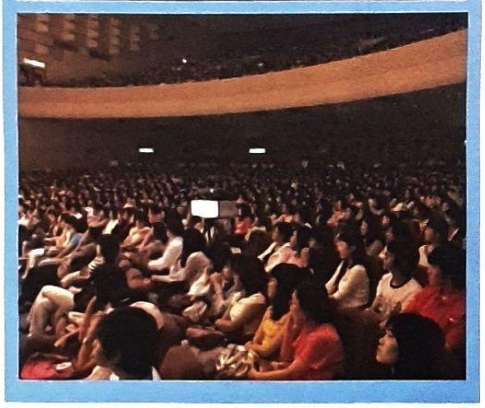
새로운 문화의 창출 EF

전도집회의 발상전환

EF축제
2007년 5월 10일(목)
오후 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







춘천의 청년복음축제 'EF'

문화를 통해 비기독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복음축제(EF)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리듬'이라는 주제로 5월에 열린다.

'음악과 강연의 밤'을 11년 전부터 강원대학교 기독인연합으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하여 개최하였던 행사를 지난해부터는 타 지역에서 하던 EF(복음전도집회)의 모든 내용을 음악과 강연의 밤의 행사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로 변화 발전시켰다.

춘천에서 올해로 2회를 맞는 'EF'는 매년 5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5월 10일(목) 오후 7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열정적인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 열정의 방향을 복음으로 향하게 하고자 2007 HOT 청년 문화 코드인 'B-BOY' 공연과 THE PLAY(뮤지컬 팀)의 '떡볶이' 공연이 펼쳐지며, 메시지(메신저: 이상민 목사),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와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각 교회와 춘천지역의 청년 대학생들 모두는 이 EF(음악과 강연의 밤)를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 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EF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F를 통해

* 2002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6만여 명의 청년이 복음을 들었다.
* 매 집회마다 평균 40% 이상의 비기독청년이 복음을 들었다.
* 5년에 걸쳐 전국 8개 지역과 캠퍼스, 지역교회에서 50여 번의 집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을 받았다.
* 현 세대와 시대의 감각에 맞는 기획과 복음의 깊이가 어우러진 집회이다.

EF는

복음과 전도대상자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음을 이 시대 청년의 언어로 표현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축제(Festival)이다.

♣ EF는 비기독 '친구'에게 '전도'하는 축제이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친구'라고 한다. EF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선후배를 택하여 그들에게 특별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축제이다. 굳이 '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도의 의무감보다는 기존 기독청년이나 일반적 청년 모두가 복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 EF는 비기독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하는 축제다.

구속, 보혈, 십자가... 이런 용어들은 일반인이나 비기독청년에겐 '방언(?)' 과도 같다. EF는 모든 준비과정에서부터 비기독인에게만 초점을 두어야 하며, 순서에도 기독교적인 언어보다 비기독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제들을 통하여 분명 명료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EF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다.

언어나 몸짓은 비기독인들에게 초점을 두더라도 복음증거에 있어서는 직접적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복음 전파에서 복음초청으로 이어져 비기독청년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한다.

♣ EF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새 생명을 향한 공동체로 체질변화를 하도록 한다.

EF는 전도가 힘든 때에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전도의 가능성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잠자는 기독청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열정이 있는 삶을 꿈꾸는 청년들!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청년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는 청년들! 이 모든 청년들에게 열정과 재미 감동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한다.

자료 제공 : 구영록 목사(춘천지역 EF 실행총무)

2007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

◆일시: 2007년 7월 24일~28일(4박5일)
◆장소: 춘천 강원대 캠퍼스(숙소는 강원대 1,000명; 한림대 540명)

등록신청 선착순 2000명
등록안내(자료집과 복음과 복음과상황 6개월 구독권 제공)

등록비 (4박5일)	3~4월	5~6월	현장등록
개인	90,000원	100,000원	110,000원
단체 (2인이상)	1인당 만원씩 할인		

(호남지역 참가자 1인당 만원 할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 일 시 : 2007년 5월 7일(월) ~ 5월 28일(월)
- 매주 월요일(4주간)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30분
■ 장 소 : 소양제일교회(퇴계동 한주APT옆)
■ 교육비 : 개인 3만원, 5명이상 단체 2만원(교재 및 간식포함)
■ 신청 및 문의 : 봄내 호스피스(기쁨의집) 사무국(263-5454 / 011-378-5196)

※봄내 호스피스(부설 기쁨의 집)는, 고통당하는 말기환우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고자, 지난 99년 10월 춘천에서 설립된 기독교 호스피스 전문기관입니다.

▶ 환자입원 상담 033) 261-5652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40



<기쁨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거룩한 형상과 아름다운 세상으로의 첫걸음 - 미술치료

이번시간에는 한림미술치료센터 성복순 대표(춘천영광교회)와 남편 고석복 집사와의 인터뷰입니다.

한림미술치료센터를 섬기는 성복순 집사는 미술치료사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대인관계, 분노, 상처받은 마음, 억압된 슬픔, 지우고 싶은 수치심, 두려움, 지나친 완벽주의, 지나친 양심 등등 이러한 것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유발되는 문제 행동 등을 미술치료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센터는 시작 되었습니다" 남편(고석복 집사, 한림대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 속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며 환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그녀의 당찬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한림미술치료센터가 시작된 배경과 과정은?

결혼 전, CCC전임간사로 일하는 동안 어린이 제자화 운동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결혼하고 춘천에 와서 독서지도사로 일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 제자화 훈련을 함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말이 없는 남자아이를 만났다. 이 아이를 만나보면 무언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답답했다. 그러다가 속명여대에서 실시하였던 아동상담 과정 중 미술치료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매력을 느껴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이 아동의 그림을 받아보았는데, 그림 속에서 표현된 아동은 가족 내에서 왼전히 고립된 모습이었다. 엄마는 강압적인 존재로서 '식칼'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무섭고 강압적인 엄마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 아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난 후, 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도와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미술치료사의 길로 들어섰고, 2004년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한국미술치료학회 인증기관으로 한림미술치료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마음의 치유와 성숙은 자신과 상담자, 그리고 주님의 합작품입니다."





▲치료아동의 가족이이기



▲개인미술치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미술치료사역을 하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내들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 은사와 관심분야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처음 미술치료과정을 공부하고자 했을 때 많이 걱려하였다. 서울로 오가며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동안 아이양육, 청소,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기정을 세워나가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협력할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충분한 의논의 시간을 갖는다. 아내는 미술치료사역을 하면서 남편인 나에게 기도제목을 나누고 경영전반에 대한 상의를 한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다. 그래서 서로 바쁜 중에 질서대로, 한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다. 부부란 하나님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이자 인생의 친구이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며, 어떤 면에서 나는 미술치료사역을 하는 아내의 든든한 매니저라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란 무엇이며, 성경적 관점으로 미술치료사역의 영적유익을 평가에 본다면?

미술치료란 미술활동을 통해 내면의 상태를 읽고 해심문제를 찾아서 적합한 미술치료 기법으로 치료 또는 교육, 성숙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혼란이 있었다. 사람의 내면이 그림을 통하여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무서웠다. 꼭 점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3일 동안 기도에 집중하였다. 이때 받은 응답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미술치료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어느 날 4가지 마음 밭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4가지 밭의 종류확인하기, 결실치 못하는 원인 찾기, 결실토록 처방하기, 이런 과정으로 묵상하는 중, 미술치료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교회의 청소년들과 CCC대학생들에게 적용해 보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 '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이 형상이 보이지 않는가?'란 의문과 함께 하나님 형상 외에 겹겹이 싸여져있는 껍데기를 보게 되었다. 이 껍데기를 제거해야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데 미술치료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미술치료기법을 이용하여 '하나님 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상'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의 실험과정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사역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기뻤다.

현대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대가정에 문제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막히었다는 것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상을 볼 수 있는 그림작업을 해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자아상으로 자녀를 둘러싼 경우 등 각자 고립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외로운 것이다. 그래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서로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형태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로인해 우울증이나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병리적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병리적가정의 문제는 '가족 내 역할의 혼란'이다.** 예를 들어 외형적으로 가정 내에 아버지가 있지만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할 경우, 심리적 가장은 어머니일 수도, 때론 자녀이기도 하다. 자녀가 심리적 가장역할을 한 경우, 자녀역할, 무의식적 가장역할 등에서 오는 정체감 혼란과 에너지 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학업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 **미술은 마음을 나타내는 정화하고 유용한 도구이기에 직접적 의사소통과 자기통찰에 매우 유익하다. 말로써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림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가족의 체계나 구조를 진단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가족역할을 분담하고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 가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 장애가 생기면 온 가족이 힘들게 되므로, 이 부분을 적극 돕고자 '이마고 부부치료' 과정을 수련하면서 부부상담, 가족상담도 하고 있다.

한림미술치료센터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과정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출장교육 및 집단미술치료, 교사연수,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위해서는 노는 토요일의 'Playful School'-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를 집목한 정서 프로그램(현재는 교육청 위탁운영 중), 큰나라교실(ADHD아동을 위한 방과후교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미술치료캠프,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정서문제나 부적응행동, 신체화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개인 및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엄마들의 자아발견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하여 '좋은 엄마되기'를 미술과 독서활동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들어서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세상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밝히 보고 영접하도록 쉽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성경적인 바른 상담자가 되기 위하여 상담을 전공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치유사역자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센터가 세상과 교회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또한 교회나 선교단체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치유와 훈련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지 검사'를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부부치료전문가'로서 깨어진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미술치료센터 T.263-7572 http://cafe.daum.net/atcc]

일시: 2007년 4월 24일 장소: 한림미술치료센터
진행, 글 정리 : 정재호 사진: 김미경

선 교



사랑으로 세계를 품으라

-단기선교 가이드-

매년 조국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떠나는 사람은 약 15만 명(?)에 이른다. 국외경험과 비전확인, 선교 등등으로 소풍의 설렘, 수학여행의 기대, 군 입대의 두려움과 같은 마음을 갖든, 여행하는 것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을 갖고(롬1:16; 고전1:18)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후5:20; 고전1:9; 요일1:3).

단기선교라 할지라도 떠나는 자는 영의 뜨겁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이어야 한다(딤전3:1; 행16:2 18:25).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갈 때에,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참으로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있을 것이다(계2:2; 요삼8; 빌4:15; 행18:27). 또한,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고(벧전5:8-9),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으며(약5:17-20), 주님의 귀에 들려진 흔의 소리를 실행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고(행10:20; 눅19:1-10; 요4:4; 5:7-가기 전과 가서, 갔다 와서도 이 듣는 기도는 중요하다), 이상한 여행(?)을 하더라도(마10:16-20; 요20:18) 인도하시는 구원의 대장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히2: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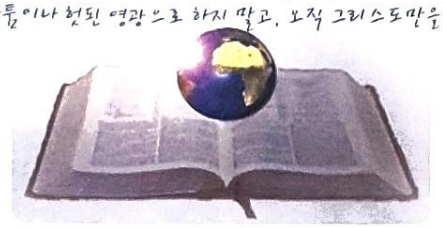
무력과 재력을 앞세운 이전의 선교방식과 같이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육신을 따라 싸워서도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어야 한다(고후10:3-5). 길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대로 그 분량을 따라 복음을 선포함으로 선교지에 이르러야 한다(고후10:13-14). 그러므로 여행과 선교를 위해 돈이 필요하며 조국의 위상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그분께서 믿음의 들음으로 하신다(갈3:5).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복음지에 이르도록(살전1:5)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 분(마28:18-20; 빌4:9; 요8:29)의 확증이 있을 것이다(막16:20).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방문국가와 선교지에 대한 교육 및 선교 방향조차도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우선 되어야 한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빌1:6), 수종드는 자로서(행13:5)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함께 할 일은 무엇이고, 섬길 일은 무엇이며 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빌2:22)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들아보아야 한다(몬14).

나는 중국에서 팀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공안이 닥칠까봐 망보는 자이었었고, 기차를 탈 때 자매들의 짐을 들고 뛰는 자였다(우린 기차가 오기 전 플랫 홈에 나가지만 그곳은 도착해서 게이트가 열렸다. 행17:14-15; 20:5,13,17; 요4:8; 12:6). 당신이 할 일이 바구니를 내려주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다(고후11:33). 주님의 일이 성취되며 팀이 서도록(마12:25-26) 무슨 일이든 다름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빌2:3; 갈5:26).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식적이다(마10:9-11; 눅22:35-37). 모르면 물어 준비할 수 있다. 언어를 모르는 민족에게 보내지기에 단기라 할지라도 언어를 준비할지도 모르겠다. 할 수만 있으면 하라. 하지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더 중요한 예비는 선교사라는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다(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 네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 네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네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겔3:6). 이것이 선교여행의 첫경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이집트, 나자렛, 요르단 강, 카페르나움(마4:13-16), 예루살렘(마20:17-19)으로의 여행이 모두 말씀 성취를 위해 옮기셨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선교여행에서의 선인 것이다(약4:13-17). 설렘이 힘에 부치는 압박으로 단념으로 변화될지도 모른다(고후1:8-10). 그러므로 선교지에서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움직이는(창1:2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에비는 필수적이다. 아무리 바빠도 선교사와 팀원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 결과는 불평과 원망의 쓴 뿌리가 생기지 않는다. "거룩한 기쁨은 순종이라는 바퀴의 기름이 된다." - 메튜 헨리 - 는 말을 잊지 말라. 선교자의 발(롬10:15)을 위하여 곧은 행로를 만드는 것(히12:13)은 바로 함께하는 이 평범한 예배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어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기록대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바 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사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 계심을 허다한 절대무오의 증거들로 보여 주신 것이다(고전15:3-8). 이것을 우리는 받았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같이 선포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선교여행지에서 또 선포돼야 한다. 이것이 없는 것에 선교라는 말을 쓰지 마라. 당신은 이 복음을 가져오는 자인가? 당신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당신들의 말이 세계의 가장자리까지 이르러(롬10:18) 열매를 얻게 되어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눅10:17). 다만, 방문 국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나라 교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면서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여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성취한 그 일들을 정직하게 보고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눅10:17; 행14:27).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것과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들은 나와 나의 후원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며(눅10:20; 빌4:3), 복음의 진전을 통해(빌1:12)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편 많은 이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다(고후9:2). 어느 지역에서는 여러 미디어의 기계로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 영 안에서 기록하며, 기억하며, 순수함 마음을 일깨우며, 자극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사람으로 세계를 품고(요일3:1; 4:9-11),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자(요5:19). 그것이 선교이다.

<편집부:이영규>

춘천시 장로교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 사랑의 바자회
*일 시 : 5월 24일(목) 오전 9:30
*장 소 : 고슴도치섬(위도)
*문 의 : 011-653-3595(서기: 윤대영목사)
※장로교회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lr
(클럽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너레디자인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십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춘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

지난 4월 6일(금) 오후7시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약 20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기독교 복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한 기도운동의 일환으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춘천을 사랑하며 시민들의 아픔과 고난을 돌아보고 나누는 대표적 문화행사로 5회에 이르고 있다.

본 행사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의의를 바르게 짚어봄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였으며, 추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십자가 대행진의 새로워진 특징들을 알아보자.

지금까지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본 대회를 통해 내적으론 교회의 일치운동과 외부적으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를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적으로 나누는 기회로 삼아왔다. 춘천의 중심인 중앙로를 걸으면서 지역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고 도시의 발전과 영적인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회였다. 이번에도 동일한 목적과 함께 한층 더 진보된 모습을 보였다. 회장 이원호목사를 선두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한손엔 촛불을 들고 중앙로를 거쳐 봉의산까지 대행진을 펼쳤다.

첫째, 성금요일을 택하여 행진 함으로써 성경 원래의 의미를 재현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부활주일 오후에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시기적인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각 개교회의 행사들이 많이 증복되어 있었고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시간이며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러시아워의 시간대라는 문제와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대로의 절기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게 되었다. 이에 기독교연합회는 3월 12일 실무모임에서 준비위원장에 한균목사(평화감리교회)와 이학규장로(석사교회)를 선임하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 조절하며 십자가 대행진을 기획, 진행하였다.

둘째, 명칭에 대한 특징이 있었다.

기독인들만이 아닌 시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알리는 기회가 되기 위하여, 또한 지리적으로 통일문제와 시기적으로 희망 춘천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에 '평화' 라는 말과 '춘천사랑' 이라는 의미를 첨가하여 대행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시민들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춘천의 희망을 소망하는 영적 촉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셋째, "fre again 2007 봉의산 성령집회"가 특별히 처음 기획되었다.

올해는 한국의 부흥이 일어난 평양대부흥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로 이 부흥의 불길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봉의산 산상 성령집회를 기획하였다.

특히 공지천에선 춘천을 위해, 봉의산에선 강원도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등 다양성과 확장된 비전이 있는 행사였지만, 무엇보다 전 도시가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시역사를 위해 춘천을 바라보며 봉의산상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 "빌라도의 법정"이란 연극의 퍼포먼스 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들고 아름다운 호반 춘천이 생명과 복음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뜨거운 기도의 함성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외에 이번 행사에는 특히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연합된 헌신이 특별하게 돋보였다. 준비위원들 모두의 헌신과 하나 된 모습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준비위원장 한균목사와 이학규 장로의 지휘아래 각 실무부서들도 실질적인 조직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여 행사를 준비하였고, 행사 한주 전엔 매일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였으며, 금요일엔 연합 철야기도회를 하는 등 기도로 준비하였다. 특히 모임 후에는 홍보와 협조를 위해 함께 할 교회들마다 방문하여 심방을 하는 등 모두가 열정을 품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춘천시청에서의 관심도 남달랐다. 이 행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 받은 시관계자들은 '희망춘천의 건설' 을 위한 문화적 행사라는 것을 공감하고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시와의 연합적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연합하는 하나 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비취던 반 연합적 모습들이 많이 깨어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는 변화된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개교회의 준비된 행사까지 뒤로 미루면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과연 예상한 인원동원이 될 수 있을까 하던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약 2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 주일학생에서 노인들까지 늦은 시간 공지천에서 봉의산까지의 먼 길을 찬송을 부르며 기도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 봉의산을 오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모습을 생각했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엔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다시금 각인되었고, 춘천을 새롭게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2007 부활절 연합 예배'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에 이어 4월 8일(주일) 오전5시 시청광장에서도 약 2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유년부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함께 한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이 모든 행사는 철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날씨와 기후 등도 기적같이 좋았고, 모두 영적각성과 춘천과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 함께 손잡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아름다운 연합의 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뿐만 아니라 도시의 빛과 소금으로서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편집부 조영춘)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2007년 해비타트와 K-water가 함께하는 주택 입주자 신청 안내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해비타트는 사랑하는 후원자, 자원봉사, 그리고 관심을 기지고 배후에서 기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와 헙조로 매년 2동 8세대가 입주, 2006년까지 20세대가 입주하여 잘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사랑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2007년 해비타트 춘천지회는 k-water(소양댐관리공단)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을 짓기로 협약식을 하고 아래와 같이 2007년 해비타트 주택 입주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7년 5월 15일 ~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월-금요일까지)
2. 접수장소 : 해비타트 춘천지회 사무실
3. 자격요건 :
   1) 현재 집이 없는 자(혼인신고 후 5년 이상 된 가정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정 우선순위 / 소년소녀 가정세대는 예외)
   2) 춘천시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자
   3)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4) 기계 소득이 200만원(4인 가정 기준)이하이고 2007년 기준 최저 생계비 소득이상 가구
   5) 입주 전까지 500시간 이상 건축을 위하여 협동 노동을 할 수 있는 가구(가장 의무시간 150시간)
4. 신청 서류 :
   1) 입주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1부, 호적등본 1부
   3) 지방세 세목별 납입 증명서 1부 (최근 3년간:부부)
   4)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무상 임대시 확인 서류)
   5) 소득금액 증명원 1부(일반직장 근무자→직장에서, 자영업자일경우→세무서에서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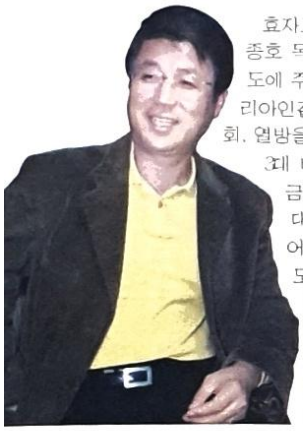
♡해비타트주택, 사랑의집은 더욱 알차게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동참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춘천지회)203-01-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Tel: 254-0009

탐방 I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 순서로 효자교회(김종호 목사) 편입니다



효자교회는 1990년 11월 김종호 목사의 부임 이래 북음전도에 주력하는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 열방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 등 3대 비전(Vision)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왔다. 최근 현대식 교회 리모델링에 이어 어린이집, 공부방, 진용도서실, 기숙사, 소그룹실 등을 갖춘 4층 규모의 교육관을 신축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여 온 열정의 사람, 북음의 사람 김종호 목사와 효자교회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자.

김종호 목사

춘천에서 김종호 목사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목사가 관여하고 섬기는 사역은 무궁무진하다. 김 목사의 고향은 강원도 목호이다. 이러서부터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 밑에서 성장한 그는 강원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며 역사의식을 배우고, 감리교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한다.

김 목사는 원래 일반목회보다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역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발령까지 났던 교사임용을 포기하고, 한국기독학생회(IVF)에서 캠퍼스 담당 간사로 6년을 섬기게 된다. 그 시절 함께 젊은이 사역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선교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총무), 유기님 선교사(알타이선교회 대표) 등이다.

균형 있는 효자교회의 사역

김 목사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역과 열방사역을 균형 있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이에 따라 효자교회는 해외 선교와 지역 선교의 균형, 젊은이 선교와 실버선교(어르신 선교)의 균형, 지도층 선교와 소외 계층선교를 균형 있게 이루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이다. 김 목사는 현재 인도 비하르 주 선교회의 회장을 맡아 인도 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도 비하르 주의 지승연 선교사 외에 이준연 선교사(일본 북해도), 김라리사 선교사(우즈베키스탄), 윤인철 선교사(C국)를 파송하였으며 10여개 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 선교에도 힘을 써 주중 비게 되는 교회당 건물을 이용, 1996년 어린이집 사역('은혜 어린이집')을 필두로 1998년 공부방 사역을 시작하였다. IMF이후 급속한 가정해체를 안타까워하며 교회의 대안으로 나온 사역이었다. 김 목사는 현재 100여개의 지역 아동센터를 대표하는 강원지역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공부방



▲사랑의 도시락

효자교회의 청년사역은 길지 않은 교회역사 가운데 가장 긴(?)역사를 자랑한다. 사역 초기부터 젊은이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 목사와 효자교회는 강원대학교 인근 교회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역을 하던 중 2000년경부터는 인근 5단지 아파트를 임대, 젊은이들의 보금자리인 효자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효자학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신축중인 350평 규모의 교육관에 60명가량이 머물 수 있는 기숙시설이 자리할 예정이다. 유병준 전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사역은 올해부터 청년, 대학부를 독립교회 형식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독립교회 형식이란 예배의 형태나 예산, 모든 시스템을 교회안의 작은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독거노인, 빈곤가정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도시락' 사역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헌신적인 효자교우들을 통해 매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이 배달된다. 월드비전의 손과 발이 되어 협력하는 이 사역은 교회와 복지단체와의 좋은 자매결연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김 목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은 외국인 학생 사역이다. 2-3년 전 강원대학교 뒷산에 올라 묵상기도와 운동을 겸하여 산책하던 김 목사는 강원대학교에서 그 인근 부지에 국제학생 기숙사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김 목사는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국제학생 기숙사가 지어진다면 우리교회가 담당해야할 몫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국제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효자교회가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도응답으로 연결된 교우가 연변 과학기술대학 출신인 중국인 크리스천 '서단' 자매(강원대 어학원 한국어담당 교수였다. 서단자매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급속하게 외국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지금은 40-5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등록되어 출석할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임사역자인 김정희 간사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세례를 받은 7명의 지체 중 1명은 선교사로 헌신할 정도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선교회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교회와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교회, 지역가정 등 바꿔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6차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가정과 교회, 지역이 함께 묶어지는 아름다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효자교회 안에는 몇 개의 중요한 은사 팀이 있다. 이웃봉사 팀, 선교 팀, 예배 팀, 체육 팀, 담임목사 지원팀 등이다. 무엇보다 특색이 있는 것은 담임목사 지원팀인데, 팀장을 맡고 있는 전영숙 권사는 "김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 선한 종이십니다. 우리는 온 교우들을 대표해서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등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우들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붙이가며 사역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꿈을 가진 김종호 목사와 효자교회는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다. *김 목사는 홍익대 미대 출신이자 사모와 슬하에 엉은(현 미국 존 브라운 대학), 영택(현 아이오아 주립대학)이 있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모연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나누기 원하는 곳
♣ 온라인, 자동이체, 전자금융으로 더 편리하게!!
♣ 대출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낮은 금리로!!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춘천와이신협
운교본점: 255-1007 (1층신협, 3층기독교연합회, 4층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

| 역사자료

춘천 성시화운동의 태동(略史 1)



조 남 진 장로
(춘천성시본부 초대본부장, 순복음춘천교회)

춘천평신도 성경구락부를 시작으로 춘천성시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춘천성시화운동의 시작은 1972년 8월에 열렸던 '춘천성시화대회'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 춘천성시화대회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70년, 71년의 감추어진 준비기간이 있었다. 70년 12월 31일부터 71년 1월 3일까지 한국대학생선교회(총재 김준곤 목사)가 주최한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가 수원농대캠퍼스에서 열렸다. '민족을 복음화 한다'는 큰 꿈을 안고 전국각처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몰려왔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민족의 복음화」라는 슬로건 하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전도하는 일정이 계속됐다.

70년에 처음 예수를 믿어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대학생선교회 사업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던 한 사람이 대학생선교회 강원도 책임자였던 윤수길 간사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 이 수원농대 캠퍼스에서 열린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와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윤수길 간사를 지도자로 하여 4명(윤수길 · 조남진 · 김형목 · 박제현)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일 교회 출석 외에는 별 다른 모임이 없었던 때라 4~5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각자가 체험한 신앙을 간증하는 일은 색다른 관심을 모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평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학교수, 초 · 중 · 고 교사, 일반직, 공무원, 언론인, 경찰관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인 이 모임은 단시일 내에 인원이 20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났으며 내 고장 복음화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이 모임은 「춘천평신도 성경구락부」로 명명되어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어갔다.

이와 같은 사실이 윤수길 간사에 의해 CCC총재인 김준곤 목사에게 알려져 김 목사께서 춘천에 내려오셨다. 김준곤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은 마치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다"면서 제네바가 성시화운동을 벌여 범죄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었는데, 춘천도 성시화운동을 벌여 시범적인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춘천성시화운동의 비전을 말씀하셨다. 김 목사는 당시 춘천 기독교계의 지도자였던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를 만나 춘천성시화에 대한 꿈을 나누고 춘천의 온 교회와 대학생선교회가 힘을 합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춘천성시화 운동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연호 목사가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샘밭침례교회 허겁 목사가 총무를 맡게 되었으며 YMCA총무 김홍규 장로가 협동총무로, 춘천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이 손발노릇을 하면서 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춘천성시화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대회에는 CCC가 전개하고 있는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를 겸하여 열렸기 때문에 전국에서 약 5천 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여름 방학 때라 춘천시내 각 학교를 숙소로 사용하고 소양강변에 이들 5천 명이 먹을 특설 취사장이 설치되었으며 2군단 군용트럭이 동원되어 밥을 실어 나르는 등 대단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성시화대회는 예배와 전도로 수 천 명의 전도대원들이 춘천 시내의 곳곳을 휩쓸며 전도열기로 가득채웠으며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다음호에 계속]

| 영혼의 양식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 고전 3:9-11



오 의 석 목사
(남춘천순복음교회)

우리 모두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데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되면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여자는 아내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들의 부모님에게서 배운, 몸에 벤 삶의 태도와 가치, 사고 언어 습관 행동 등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능과 지식은 쉽게 잊기도 하고 늘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지만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평생 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생에는 부모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부모의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와 말하는 습관이나 신앙생활이 평생에 자녀들에게 있어 영향을 주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부모 된 마음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좋은 자녀에 대한 욕심 이상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 없이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써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문제는 더 커지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부모인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다른 가족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조정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셋째로 우리 가족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넷째로 가정의 고통문제 앞에서 달아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고, 고통을 거부하고, 피하고, 지연시키려 합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내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2)또한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3)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 피곤해집니다. 4)피조물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신앙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삼1:11]

※ 교회차량 상담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
호반판매대리점
최 정 용 집사
011-379-1165
(E-mail: cjy1165@yahoo.co.kr)
♡아버지학교와 성시합창단,
그리고 가산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해발 4000미터 안데스의 산삼 마카 MACA
현대인들을 위한 고대의 선물! 마카의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 정력감퇴 해결
◆ 노화방지 및 젊음유지
◆ 불임증에 효과
◆ 여성 호르몬 밸런스 조절
◆ 스트레스 해소
◆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유지
◆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임
※남녀 판매직원채용

월 드 상 사 대표 안 순 복
위치: 만천오거리에서 하추골방향, 구)만천탕 건너편
춘천시 후평동 733-1 ☎033)252-3439 HP 010-8243-5590



"너무 행복합니다"

찬양과 복음전도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이무식 장로, 성순주 권사(석사교회) 부부편

부부가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찬양과 복음전도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이무식 장로와 성순주 권사. 모든 부부가 닮고 싶어 할 만큼 잉꼬부부로 소문난 결혼 33년차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생의 동반자

군 생활을 위해 1971년 춘천에 온 이무식 장로는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이다. 그는 공군에서 31년간 근무한 후 준위로 제대했다. 하사관으로 군 생활 중 장교로 임관할 욕심에 3사관학교에도 들어갔었지만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앞날이 불투명하자 결국 10개월 만에 퇴교, 다시 하사관 생활에 전념했다.

이무식 장로와 성순주 권사는 1965년 결혼했다. 따로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입을 맞춘 듯이 "이제껏 기억할만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이 장로와 성 권사는 서로 상대가 자신과 자신의 원 가정을 잘 배려한 까닭이라고 말한다. 이 장로는 신혼 초부터 아내의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단다. 당시로서는 매우 진취적인 남편이었던 셈이다. 성 권사도 이에 질세라 시댁식구들을 알아서 챙겼다. 7형제의 맏며느리로서 군소리 없이 이 장로의 형제들을 돌보며 키우다시피 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행실에 감동되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단다.

이 장로는 말한다. "가정이 잘되어야 이웃이나 교회도 잘됩니다. 성격차이를 극복하고 이해하는 것이 부부의 근본이기에 때때로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살면서 다른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랑이 다 헛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자랑이고 행복입니다."



성 권사는 춘천에 온지 얼마 안 되서 피아노학원을 시작했다. 얼마 후 교대생들이 몰려오면서 학원은 번성하기 시작했고 자택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 장로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모 신협이 IMF 때 부실채권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비록 월급을 받지 않는 명예직인 비상근 이사장직이었지만 이사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자산조사를 나온 정부가 부실에 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은 것이다. 부부가 힘써 일군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 일은 재판에 회부되어 6년간 이 장로 부부를 괴롭혔다. 하지만 부부는 이때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고 고백한다. 당시 성 권사는 밤낮으로 주님께 울면서 매달렸다. 그때 주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시며 "네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고 하셨다. 성 권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울음을 그쳤고, 이후 평안을 찾았다. 6년간을 끌던 이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손실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로써 끝이 났다. 정말 오랜 인내의 시간이었다.



사역의 동반자

이 장로는 군 입대 전 성경고등학교를 수료하고 시골교회에서 설교사역을 감당했다. 군에서도 부대 주변의 사역자가 없는 민간교회에서 설교자로 섬겼다. 석사교회에 다니면서부터는 주변부대교회인 성실교회에서 설교봉사를 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춘천장로연합회장이 되면서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설교사역을 인계하였다.

지금하고 있는 찬양과 복음전도사역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2005년 장로연합회에서 원자력발전소에 견학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장로가 레크리에이션을 맡게 되었다. 너무 재미있게 인도하는 것을 보고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이 장로를 초청했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노인봉사 시간에 레크리에이션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르신들에게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이 장로는 이들에게 복음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다가서야한다고 생각하고 건전가요를 준비했다. 가요가 소망을 주지는 못하지만 세파로 찌들은 이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 후에 성경이야기를 비롯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이 장로는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방식은 길가에 쓰레기를 양산해서 요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 수 있는 전도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순복음춘천교회 봉사를 시작으로 이 장로 부부는 함께 전국을 다니며 찬양과 복음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다. 성 권사는 그동안 틈틈이 배워놓은 아코디언, 색소폰, 플로, 오카리나 등 7,8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이 장로는 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 노인들의 마음을 열게 한 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 장르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 "노인이 되면서 사람들은 노후대책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죽음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보험을 든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노후대책밖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후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고향전도를 위해 고향으로 100만원을 보낸 후 잔치를 준비시켰다. 노래자랑과 함께 고향사람들을 대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단다. 내 돈 들여가며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황혼인생의 비전

이 장로 부부는 노년에 허락하신 이 사역으로 인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날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부부가 함께 찬양과 복음전도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전국 어느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기만 하면 자비량으로 감사하게 가겠단다.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후대책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외치는 이 장로. 인생의 성공!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정확, 구매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가정 식탁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아이들이 보여주는 병약함, 성급함, 자기 절제력의 부족, 폐락을 좇는 부나비 같은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는 잘하고 덩치는 커졌지만 마음은 불안하여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병폐를 미리 막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우리의 식탁문화를 바꾸면 해결책은 간단할 수 있다. 이른바 '21, 49, 7, 14, 24의 비밀'이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난 뒤로 21일 동안은 젖을 먹이고, 될 수 있으면 49일이 될 때까지 젖만 먹이는 것이다. 그리고 7세까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면 그 아이는 평생 건강하게 살 몸을 가지게 된다. 7세부터 14세까지는 인간이 평생 갖고 살 심성이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딱딱한 것을 많이 먹이면 참을성과 끈기를 키우게 되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게도 된다. 심성을 키우는 인간은 그 다음으로 14세부터 24세까지는 사회성을 키우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21, 49, 7, 14, 24 성장 사이클'이다.

우리나라의 40대 사망률이 세계적 기록을 갖게 된 이유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장 건강한 것을 섭취해야 할 시기에 온갖 가공식품과 청량음료, 화학조미료를 먹고 있지 않은가? 온갖 부작용의 원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식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먹는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말 못하는 짐승도 자연 상태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정작 사람 중에는 이를 구별하지 못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생긴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대표적으로 햄버거와 피자로 대표되는 패스트후드와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들이다. 이들 음식의 공통점은 많이 씹지 않아도 금방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이라는 점이다. 이런 결과 인간의 사잇골이 점차 퇴화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 턱이 퇴화해 갸름한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생각을 바꾸려면, 생각의 뿌리인 섭취물을 바꾸어야 한다.

1) 아이들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두뇌를 맑게 하는 견과류

- 호두 : 호두는 체력을 높여주는 식품이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그냥 먹이도 되지만 더운물에 5분 쯤 담가 속껍질을 벗긴 다음, 호두에 녹말가루를 묻혀 중간 온도의 기름에 노릇하게 튀긴다. 기름이 빠진 다음 소금을 조금 뿌려서 먹으면 더없이 좋다.
- 땅콩 : 땅콩을 식초에 담가 만든 식초 땅콩에는 리놀산, 레시틴, 비타민E가 들어있어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억력도 높여준다.

2) 키가 크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

- 콩식초 : 콩식초는 성장발육을 돕고 뼈를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도 더없이 좋다. 식초는 어혈작용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를 맑게 하여 정신까지 맑게 해준다. 무엇보다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을 높이므로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머리를 맑고 좋게 해준다.

3) 맛있는 것을 찾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

- 빈대떡 : 녹두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많다. 예로부터 녹두가 1백 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했던 까닭이 여기 있다. 얼마나 해독작용이 강한지 한약을 먹을 때는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녹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 메실 효소 : 메실은 강알칼리성이어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망가진 아이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그러면,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떻게 식탁문화를 바꾸어 갈 것인가? 4백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즉, 흰쌀밥, 흰설탕, 흰밀가루, 흰소금 등이다. 여기에 화학조미료까지 멀리한다면 우리 식탁은 그야말로 건강한 식탁이 될 것이다.

1) 현미밥을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밥이 주식이다. 밥을 통해 대부분이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연 상태에서 나는 먹거리들은 대부분 껍데기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쌀밥에 비해 현미밥이 까칠해서 먹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영양원인 칼슘과 비타민 B1을 놓치게 된다. 그 결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가 다 썩어 내려앉고 정신도 황폐해져서 인심이 사나워지고 난폭해진다.

2) 흰설탕은 줄이자.

흰쌀밥과 함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흰설탕이다.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는 노랗고, 사탕수수를 짠 물은 누렇다 못해 거무티티하다. 그 사탕수수 원액에서 흰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칼슘과 철분 따위가 깎여 나가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식탁은 흰쌀밥과 흰설탕이 가득 든 간식을 섭취하게 된다.

3) 흰밀가루를 멀리하자.

흰쌀밥과 흰설탕과 짝을 이뤄 사람을 허약하고 포악하게 만드는 것이 흰밀가루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밀가루는 대부분, 호주산이나 미국산인데, 밀가루가 수입되어 마지막 밀가루 회사까지 가는 동안, 보통 방부제와 표백제를 6~7차례나 뿌린다고 한다. 이런 밀가루를 원료로 해서 빵이나 면류, 과자 따위를 만든다. 거기에다 착색제, 빙향제, 나트륨, 흰설탕, 핑창제까지 첨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독약'에 가까운 것이다.

4) 흰소금을 멀리하자.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와 위액의 원료인 위염산을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먹는 흰소금은 위염산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흰소금으로 식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대체로 위가 약해져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위협을 받는다.

[편집부 최영조]

예 향

사 랑

1987년 8월 16일 주일날 밤, 노스웨스트 225 항공기가 디트로이트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면서 한 자동차와도 부딪혔는데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무려 155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승객 중에 단 한 명, 네 살짜리 꼬마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세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아이였습니다. 세실의 기적적인 생존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도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세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팔과 몸으로 끝까지 딸을 감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는 딸을 지켜 낸 것입니다. 끔찍한 비행기 사고도 어린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지를 못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바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칼이라"(롬8.35)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김촌감리교회	광영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중앙교회	서춘천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장로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와이신협(심인섭)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앤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국민일보춘천지사	
강원기독문화연구소(김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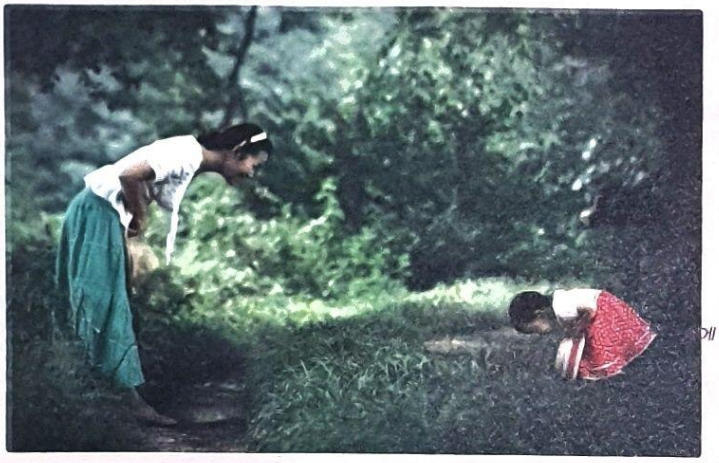
김준언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온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흥수	이국정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면	임희방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웅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포 · 토 · 에 · 세 · 이

'내가 먼저 사랑하게'



시. 김 용 배(소양성결교회 장로)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말로,
눈으로,
몸으로,
[illegible]에게 없는 주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눈가로 번지는 순간의 작은 떨림이 사랑되게 하소서
그래도 우리는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 겨를이 없다 하리니
문득 문득 마음만은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 제85회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그림전시회「동감」

1. 일시: 5월 4일(금)부터 5월 10일(목)
2. 장소: 춘천미술관
3. 내용: 인형극공연(신 콩쥐팥쥐), 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 배포, 그림전시회, 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교육

☎ (033) 244-1391 (홈페이지)www.1391.org

■ 춘천 YMCA ■

♣ 문의처

☎ (033) 255-1008(주중), 010-3013-5868(주말)

■ 월드비전 ■

♣ 제18회 파란글꽃그림잔치
및 동요부르기

1. 일시: 5월 5일(토) 오전10시~오후17:30
2. 장소: 춘천시어린이회관(삼천동)
3. 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
4. 내용: 어린이날 기념식, 사생대회, 백일장, 동요대회, 공연행사

♣ 2007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춘천 도시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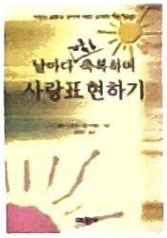
1. 일시: 5월 2일(수) 오후1시~4시
2. 장소: 춘천시청 앞 광장
3. 내용: 1부 출범식(기념식)
2부 모금생방송(희망의메세지 선포식, 성금모금)

※결식아동돕기
제7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1. 기간: 3월 ~ 6월
2. 주최: 강원도민일보 · 춘천MBC · 월드비전강원지부
3. 후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4. 성금사용처 계획
   1) 강원도내(100,000,000원) - 강원도내 결식학생(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
   2) 국내(80,000,000원) 도시락 사업
   3) 해외(150,000,000원) - 아프리카 잠비아에 초등학교 건축사업(현판에 강원도이름명기)
5. 참여방법
   1) 춘천지역은 5월 2일 13:00~16:00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성금모금실시
   2) 성금계좌: 농협 204-01-078120
   신한 515-01-038052
   3) 후원문의: 033-912-2004, 3004.

책 소 개

날마다 가족을 축복하며 사랑표현하기



- 게리 스몰리, 존 트렌트 지음 · 신광숙 옮김 · 예찬사

고 재 만 목사(춘천평안교회)

부모는 자녀의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축복을 열망하며, 그 축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부모의 축복이란 곧 '인정받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의 축복과 인정은 자신 스스로를 보는 관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친구들을 인정해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불리는 이 인정을 얻기 위해 일생을 소모한다.

이런 문제들에 도움을 주고자 게리 스몰리와 존 트렌트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설득력 있는 필치로 다뤘다. 게리 스몰리는 가족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강연가이며 저술가이다. 그는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Family Heritage Ministries의 대표이고, 존 트렌트는 달라스신학대학에서 신약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결혼과 가정상담에 관한 박사학위를 받았다. 7년 동안 가정을 위한 목회를 해왔으며, 지금은 게리 스몰리와 함께 Family Heritage Ministries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이 책에서 더 이상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 이들에게 평안을 제공하고 마음을 치유시켜 줄 축복에 관해 매우 간단하고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영적인 접촉과 신체적 접촉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축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축복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의 예와 실례를 들어 언급한다.

따라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여 내 자녀를 축복한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복과 부모의 축복과 인정 속에 자란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는 자가 될 것이기에 그 영향력에 놀라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런 축복 없이 자란 자녀들이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축복과 인정의 결핍이 그들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날마다 가족을 축복하며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길임을 깨닫게 한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 영 춘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춘천성시신문사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광 고

칼 럼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았더라면

조 영 춘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미국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의 엄청난 충격은 가히 전 세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9분 동안 170여발을 난사하며 32명의 교수와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전 세계를 경악에 빠지게 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라 완전한 답인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지만, 우선 밝혀진 몇 가지만으로도 결코 우발적이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더욱 이 같은 사건은 모방되어질수도,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엄청난 위협이 내재 되어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우선 조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몇 가지 드러난 문제점과 그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 그는 철저한 외톨이였다고 한다.

아주 어린나이에 생존과 교육을 위해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세탁소를 운영하며 타국에서의 생계가 현실문제였던 부모로부터의 들붐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전혀 다른 백인들 속에서 환영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심각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빠져 살았던 그는 왕따로써 마음속에 파괴적인 분노가 일렁이며 자라난 맹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어린 시절의 자울 수없는 깊은 상처가님아 있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강도의 총격사건으로 사망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디트로이트를 떠나 버지니아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당한 충격의 상처는 복수심으로 자리 잡혔고 외톨이로 살던 그의 마음에 불에 기름처럼 작용하진 않았을까?

셋째, 외톨이 조씨는 가상 세계에 살고 있었다.

외톨이 조씨는 인명을 살상하는 전문 게임인 "카운터스트라이크"라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있었고, 주로 인터넷에 파묻혀 세상과 단절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다. 게임의 파괴성은 이미 다각적으로 그 위험성이 지금까지 경고되어 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국, 그 속에 있었던 폭탄의 도화선이 터지면서 엄청난 살인사건으로 비화된 것이 아닐까? 만일 이런 가정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런 분노에 의한 살인병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주변에도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고 이런 유사한 모방범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현재진행형의 문제라는 게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런 일에 진정한 해결의 참 열쇠인 복음과 사랑을 들고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이런 파괴적인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본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5월 목동모임
일시: 5월 12일(토) 중학교: 오후1시30분, 고등학교: 오후6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2)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5월 19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침례교회
강사: 오상재 간사 ※오상재 간사의 이란 선교사 파송식.

3) 기독동아리 연합체육대회
일시: 5월 26일(토) 오전9시~오후3시
장소: 미정
문의: 244-5400/010-925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LTC(학생전도훈련)
일시: 5월 7일(월) ~ 9일(수) 오후7시~10시
장소: 춘천CCC회관

2) CM 2007을 위한 24시간 연쇄기도
일시: 5월 17일(목)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직장인예수제자훈련학교 4기
학교진행: 4월 20일 ~ 9월 22일
치유기간: 6월 18~22, 25~29일
전도여행: 7월 중순
등록비: 15000원, 회비: 110만원
장소: 일심장로교회(동면 장학리)
시간: 목, 금-저녁 6시 30분~11시 토요일-오후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3) King's Kids
일시: 5월 12일 ~ 8월 18일
대상: 초등4학년 ~ 고2(15명)
회비: 35만원(전도여행비 외)
발렌타이 모집: 19세 이상 형제1명, 자매2명
문의: 255-2619

4) Cross Camp
기간: 5월 1일(화) ~ 5일(토)
장소: MT회관, 은누리교회
대상: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
문의: 011-9901-0353

◆IVF

1) 한림대 중간수련회
일시: 5월 4일(금) ~5일(토) 장소: 춘천IVF회관

2) 강원대 MT
일시: 5월 4일(금) ~5일(토) 장소: 오월당

3) 전국 사무간사 수련회
일시: 5월 21일(월) ~ 23일(수) 장소: 파주 실람의집
문의: 252-5200

◆JDM

1) TTS 수련회
일시: 5월 11일(금) ~ 12일(토) 장소: 대전

2) 가족의 밤
일시: 5월 18일(금) ~ 19일(토) 장소: WDTI(세계제자훈련원)
문의: 252-3192 / 011-9068-3192

◆어린이전도협회

1) 세소식반 강습회 종강
일시: 5월 21일(월)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장소: 춘천지회 강의실(봄내병원5층 추수홀)

2) 학교 순회 전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1:30~4:00
※소양5/3 우석5/10 후평5/17 호반5/24 효제5/31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cfch/]

◆GBT성경번역선교회

1) GMF 수련회
일시: 5월 10일(목)~11일(금) 장소: 안산

2) 위클리프스쿨 수료식(BT, SM)
일시: 5월 24일(월)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

3) 지역교회 선교세미나
일시: 5월 23일(수) 장소: 천안
진행: 권성천선교사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UBMK(올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33-315-7579 지광이선교회 신광교회 유근일목사)

◆타(전도축제)
일시: 5월 10일(목) 오후7시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회관
문의: 011-9058-3192

◆춘천CBS방송 창립12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주최: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CBS방송
일시: 5월 13일(일) 오후7시 장소: 춘천중앙감리교회
문의: 255-2001

◆제13회 춘천올리클럽기도회
일시: 5월 21일(월) 오전6:30 장소: 순복음열린교회(퇴계동)
문의: 김영명 장로 011-9792-5775

◆장로교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일시: 5월 24일(목) 오전9:30 장소: 고슴도치섬(위도)



성전(중·소교회)꽃꽂이, 동양꽃꽂이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3시<중 · 소 교회 성전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4시30분<동양꽃꽂이>

◆강 사 : 양금환 교수(승룡라원춘천지회장)

◆내 용 : 중 · 소 교회를 위해 소박하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꽃꽂이 강습과 오리엔탈적인 신비스런 미를 강조하는 동양꽃꽂이 강습으로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

◆회 비 : 초급과정 4만원(매주 꽃값은 개인부담)

기독 다도(茶道)회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일 시 : 5월 1일(화) 오후2시, 오후6시30분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2시(A반), 오후6시30분(B반), 하루 2회>

◆강 사 : 장은자목사(크리스천티아카데미원장, 서영희(다도회 회장, 최태자(다도회 총무)

◆내 용 : 다도에 대한 역사와 기독교적 의의를 알고 다도를 통한 예의범절과 신앙적 인격수양을 연마하며 다양한 차들의 효과및 건강관리비결을 배운다. (예: 차와 기도, 접대하는 차, 나누는 차, 차와 데백, 구역예배 영다, 항암, 당뇨, 감기, 비만 등에 따른 차의 약효, 건강상식)

◆회 비 : 4만원(다구 및 차는 개별적으로 구입)

쉐마 교육 클리닉(유대인 교육)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일 시 : 5월 7일(월) 오후6시 개강<매주 월요일 오후6시부터, 12주간>

◆강 사 : 방미숙 교수(쉐마교육상담연구소 소장)

◆내 용 : 노벨상 30%의 인재를 낳고 세계 경제와 문화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대인의 교육방법의 비밀을 밝히고,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에 새로운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영적, 인성적 교육방법이다. (예: 유대인은 누구인가?, 유대인의 교육이해의 근본 원리, 유대인의 효도 · E.Q · 경제 · 형제 · 부모,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 교육 등)

◆수강료 : 30만원(12주, 3개월)

교육인적자원부등록 사회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인재한국 개원 • 문 의 처 : 본원 사무실(춘천 CBS 3층) ☎033-241-8801, 8802 HP: 019-389-3657, 011-372-910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종 합

■ 기쁨의 집 자원봉사자 전체모임



봄네호스피스 부설 기쁨의 집(대표:이주호목사) 자원봉사자 전체모임이 3월 31일(토) 오전 11시 소양제일교회에서 있었다. 그동안 고통당하는 말기 환우들을 돌보며 헌신해온 봉사자들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격려하며 식사를 나누고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 고교학생회장단 리더십 워크숍



강원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춘천YMCA가 주관한 '강원도 고교학생회장단 리더십 워크숍'이 4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촌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다. 강원도 각 지역의 고교에서 모인 112명의 학생회장단은 학생회 자치력을 키우기 위한 회의진행법 및 대화기법, 민주시민교육을 받았으며 주제토론과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 일어나라 평화일꾼들이여!!



평화한국 창립대회가 4월 13일(금) 오전 10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평화한국의 고문과 이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춘천출신인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박사 통일연구원실장)는 "패권과 정복의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정신으로 일하겠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회의 갱신으로 복음통일을 힘께 이뤄가자"고 전했다.

■ 제4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강원도가 주최하고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원장 안동규)가 주관하는 '제4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개강식이 4월 20일(금) 오후6시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김진선지사와 김중석강원도민일보사장, 이기찬동문회장과 90여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분임토의,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원종국목사 동부연회 부흥단장 취임



감리교 동부연회 부흥단장 이·취임 및 웨슬리안 리더십' 출판감사예배가 4월 1(일(월) 오전11시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500여명의 성도들과 이요한목원대총장, 류승민동부연회장로 연합회장 등 축하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임홍만단장에 이어 원종국목사가 제27대 단장에 취임됐다. 한편 원종국목사가 번역한 러벳 윔즈의 「웨슬리안 리더십」 출판 감사예배도 함께 가졌다.

참 아름다워라! 창단발표회



춘천성시합창단(단장:정세환) 제1회 창단발표회가 4월 16일(월) 오후7시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희)와 춘천홈리클럽(회장:이학규)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민성숙지휘자, 김은신반주자, 51명의 단원들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목마른 사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등 아름다운 하모니로 사랑과 소망의 찬양을 선사했다.

청소년들의 축제 APPOINT





춘천청소년선교단체 예스컴은 4월 21일(토) 오후6시 강원대 실사구시관에서 '제11회 강원지역연합 학원복음화대회 APPOINT를 개최했다. 약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이 대회에서 교역자연합회장 한균목사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도전을 주었다. 교역자대표 신명섭전도사, 교사대표 김희균신생님, 학부모대표 이혜숙어머님의 뜨거운 기도와 피종호목사의 축도로 열정의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춘천의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열렸던 27일(금)에는 각 학교의 기독동아리 학생들이 노방찬양과 복음전도사역을 펼쳤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회



제12회 춘천홈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 기도회가 4월 24일(화) 오전6시30분 거성교회에서 열렸다. 기도회 후 강원농협부본부장 홍세표장로는 농협의 사업계획을 소개하였고, 식사 후 약60여명의 회원들은 거리청소를 실시하며 살기 좋은 도시, 춘천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 춘천중앙교회 109주년 기념출판



춘천중앙감리교회(담임:권오서감독)는 창립 109주년을 맞아 교회역사를 담은 '중앙교회사'를 출판하고 4월 15일(주일) 오후7시30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책은 이덕주 감리교신학대학 한국교회사 교수가 편집하였다.

■ 기독다도회



인제한국 평생교육원(원장:김성호목사)은 4월 16일(월) 오후2시 본 기관에서 정희봉목사(서울신교신학대학장), 장은자목사(크리스챤티아카데미원장), 서영희 다도회회장, 최태자 다도회종무를 초청하여 기독다도회를 열었다.

■ 월드비전 춘천지회 임원회의



월드비전 춘천지회(지회장:권오서감독)는 4월 23일(월) 오후6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2006년 사업보고 및 2007년 사업계획과 사랑의 쌀 십나누기 캠페인 프리젠테이션 후 신임지회장으로 박상호목사가 추대되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홍창표)은 14월 2일(월) 오전11시 30분 본 기관 관장실에서 춘천YMCA 강원도청소년쉼터 상담원7명, 본 기관 상담원8명(총15명)이 함께한 가운데 직원상견례, 기관견학, 협약서 체결을 하였다. 24월 26일(목) 오후2시 본 강당에서 사례의 효과적인 개입 논의를 위한 '제10회 case conference'를 실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관련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창조도시 시민포럼



창조도시 시민포럼은 4월 27일(금) 오전 7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한창석부위원장(산토리니 대표), 김동식국장(지방분권아카데미 교육행정실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문화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인트로단계' 6기모집)"

1. 개강일시: 2007년6월 4일(월) 오후 6시40분(시간엄수)
2. 기 간: 6월 4일(월)~6월 29일(금)(매주월화목금 6:40~10:10PM) 1일 3시간씩 본백 1개월(16일간 총56시간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 및 교재: - 인트로단계 - 6기 교재 - Interchange(Intro) -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꿈이있는교회' (교통편: 카톨 22번28번버스)
5. 본훈련 소는: ①초5·6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등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③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가체이 할 곳.
   ⑤경험자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평택 등)에서도 방학 때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⑥영어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 발음문법 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지내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5월 26일(토)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264-0691,011-386-6239,010-8250-0688)
7. 공개설명회 및 체험시례: 1차(5월 12일(토) 오후5시~6시30분) / 2차(5월 19일(토) 오후5시~6시30분)

미라클 체험수기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미국 현지에서 쓰는 영어가 단 한달만에 입이 열린다!"
"정말 획기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이미 춘천 수료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
"받은 분의로 참된 구원실현의 참여자들이 100% 등록 했습니다!"
"공학교 영어를 포비하는 공학 예비생들에게도 더 많이 주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슨한 이력"가 아닌, 목적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 방법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만 회화도 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